



발행인 방하남
편집인 성재민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8
FAX 044-287-6089

발행일 2017년 4월 10일

2016년 임금동향 및 2017년 임금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2(seesaram@kli.re.kr)

2016년 2.8% 성장률에도 저유가로 인한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일부 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건설업의 호황으로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동반 성장함으로써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3.8%(0.3%p↑)를 기록하였다.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별급여증가폭이 전체 임금상승률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에는 글로벌 경제여건이 다소 개선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소폭 하락한 2.5%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가수준도 높아지고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률 둔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노사가 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협약임금상승률이 3~4%대에서 움직이고, 2017년 최저임금인상률도 전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고, 공무원임금이 2016년 대비 3.5% 상승한 점 등이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7년 임금상승률은 3.5% 수준으로 전망된다.

I. 2016년 임금동향

2016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경제성장률전망치(2016년 1월, 3.0%)보다 저조한 2.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경제성장률 아래 실질임금상승률(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총액 기준)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2.8%(0.1%p↑)를 기록했다. 1인당 명목임금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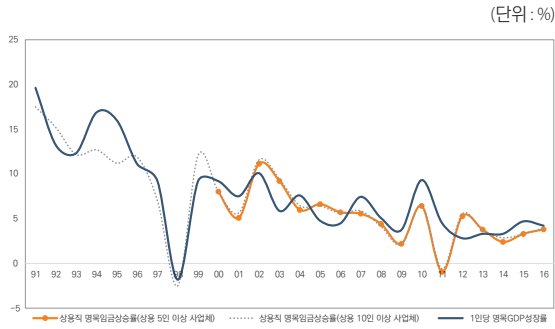
은 2015년 3.5%, 2016년 3.8%로 1인당 명목GDP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100인 이상 사업체의 노사간 교섭을 통해 결정된 협약임금인상률은 전년대비 3.3% (0.4%p↓) 상승함으로써 최근 몇 년간 3~4%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상용직 정액급여증가율의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¹⁾

2016년 명목임금상승률
(전체근로자 기준)은 전년대비
3.8%

1) 협약임금은 1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명목임금과는 차이가 있다. 추세적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파악된 상용직 정액급여증가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그림 1] 명목GDP성장률과 명목임금상승률 추이(1인당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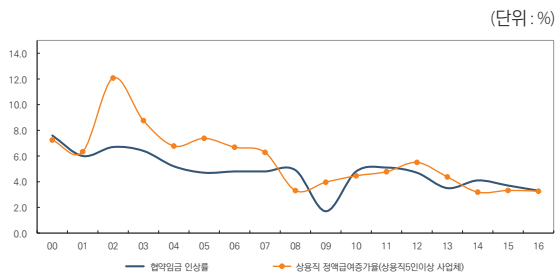
[그림 2] 실질GDP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추이(1인당 기준)



주: 1) 명목임금상승률은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2) 실질임금상승률은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3) 1인당 실질GDP성장률의 실질GDP를 추계인구로 나누어 계산함(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그림 3] 협약임금상승률과 상용직 정액급여증가율 추이



주: 상용직 정액급여는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e-나라지표, www.index.go.kr>

II. 2016년 임금동향 특징

**2016년 저유가와 건설업
 호황으로 관련 산업 중심의
 수익성 개선이 상용직
 특별급여의 큰 폭 상승 견인**

상용직 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큰 폭 증가
 2016년 임금상승률은 3.8%였으며, 이 중 상용직과 비상용직(임시·일용직)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3.8%,

3.2%로 전년대비 모두 0.5%p 상승하였다. 특히 상용직의 임금내역(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별 변화를 정액급여의 증가폭은 장기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2014년부터 3%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림 4]를 보면 상용직의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임금동향의 가장 큰 특징은 상용직 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3.7%), 건설업(17.2%), 부동산업 및 임대업(15.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2%) 부문에서 특별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변동성 급여의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2016년에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일부 산업, 특히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건설업의 호황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는 산업에서 동반 성장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들 산업 대부분에서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2015년)은 전산업 평균(4.7%)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2015년)」을 보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9.2%), 부동산업 및 임대업(8.0%, 임대업 12.6%)의 수익성은 전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었다.²⁾ 최근에 발표된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2016년 1~3사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전년동분기 대비 전산업 평균을 상회한 수준이며, 특히 3사분기에는 1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이어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석유화학 관련 제조업의 2016년 1~3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각각 9.5%, 11.0%, 7.6%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상용직 특별급여가 전년대비 66.8%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익성이 개선된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 주도
 산업별로 임금동향을 보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2) 「기업경영분석(2015년)」에 따르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매출액증가율은 -10.8%로 나타나 전산업(-4.7%), 제조업(-6.2%) 부문보다 성장성이 낮은 반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9.2%로 전산업(4.7%), 제조업(5.1%) 부문보다 높아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8.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6.5%),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5.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6%), 부동산업 및 임대업(5.6%) 부문에서 임금이 전산업 평균상승률(3.8%)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산업 대부분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익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았으며, 이로 인해 공통적으로 상용직의 특별급여 증가폭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16~24%)이었다. 특히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에서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증가율은 각각 40.4%, 64.9%로 나타나 대규모 사업체 특별급여증가율 평균(4.2%)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임금은 감소하였다. 조선업 관련 산업인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의 2016년 3사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3%로 제조업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었

으며, 특히 선박 및 보트 건조업(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8.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의 상용직 임금은 전년대비 4.3% 감소했으며, 특별급여는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사업체 임금상승률은 2015년에 이어 둔화 지속 2016년 임금상승률이 전년대비 개선된 가운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전체근로자 기준)은 2.3%(1.4%p↓)로 2015년에 이어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전체근로자 기준)은 전년대비 3.7%(0.1%p↑)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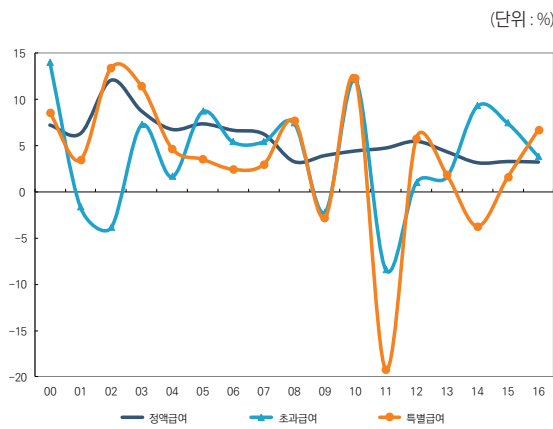
<표 1>은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용직 임금은 전년대비 0.4%p 상승했지만, 3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2015년 저조한 임금상승률에 대한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의 100~299인 사업체에서 기저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 둔화는 상용직의

그러나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운송장비 관련 제조업의 상용직 특별급여는 전년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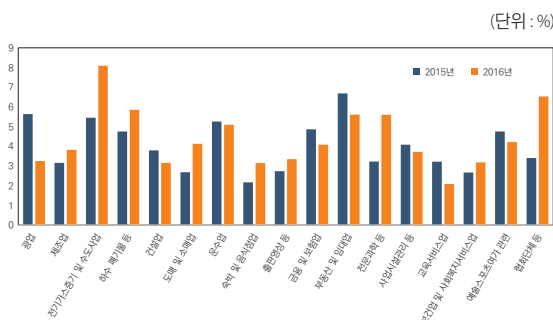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 둔화는 상용직 정액급여 증가폭 둔화에서 기인

[그림 4] 상용직 임금내역별 증가율 추이



주 :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총액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그림 5] 산업별 임금상승률 비교(2015년과 2016년)



주 :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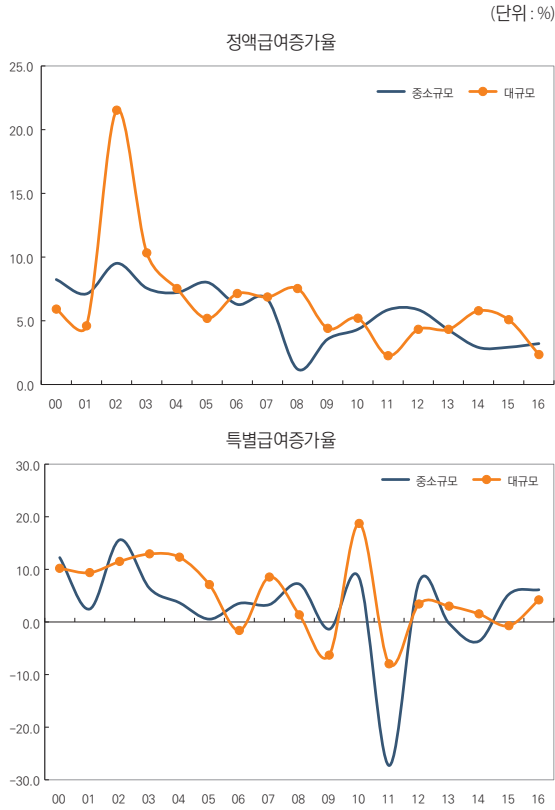
<표 1> 상용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천 원/월, %)

연도	상용근로자 전체	300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2006	2,542 (5.7)	2,283 (5.8)	1,886 (5.8)	2,187 (5.1)	2,413 (6.8)	2,646 (5.1)	3,493 (4.1)
2007	2,683 (5.6)	2,426 (6.2)	1,957 (3.7)	2,331 (6.6)	2,574 (6.7)	2,836 (7.2)	3,744 (7.2)
2008	2,802 (4.4)	2,493 (2.7)	2,055 (5.0)	2,385 (2.3)	2,593 (0.7)	2,928 (3.2)	3,921 (4.7)
2009	2,863 (2.2)	2,557 (2.6)	2,115 (2.9)	2,442 (2.4)	2,682 (3.4)	2,957 (1.0)	3,934 (0.3)
2010	3,047 (6.4)	2,699 (5.5)	2,212 (4.6)	2,561 (4.9)	2,837 (5.8)	3,126 (5.7)	4,291 (9.1)
2011	3,019 (-0.9)	2,675 (-0.9)	2,186 (-1.2)	2,562 (0.0)	2,864 (0.9)	3,113 (-0.4)	4,273 (-0.4)
2012	3,178 (5.3)	2,834 (5.9)	2,295 (5.0)	2,711 (5.8)	3,046 (6.4)	3,355 (7.7)	4,424 (3.5)
2013	3,299 (3.8)	2,938 (3.7)	2,389 (4.1)	2,815 (3.8)	3,145 (3.2)	3,484 (3.9)	4,583 (3.6)
2014	3,378 (2.4)	3,008 (2.4)	2,434 (1.9)	2,931 (4.1)	3,258 (3.6)	3,443 (-1.2)	4,827 (5.3)
2015	3,490 (3.3)	3,110 (3.4)	2,539 (4.3)	3,063 (4.5)	3,351 (2.8)	3,487 (1.3)	5,017 (3.9)
2016	3,623 (3.8)	3,228 (3.8)	2,634 (3.7)	3,183 (3.9)	3,462 (3.3)	3,668 (5.2)	5,131 (2.3)

주 : 1)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기준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그림 6] 사업체규모별 정액급여증가율과 특별급여증가율 추이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총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정액급여증가폭 둔화(1.7%p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산업의 대규모 사업체에서 특별급여증가율이 상당히 컸음에도 상용직 정액급여증가율의 둔화가 전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을 제약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의 정액급여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6%대 이상이였지만 금융위기 때 3.3%까지 떨어진 이후 4~5%대 증가율을 회복했지만 2014년부터 3%대 초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체의 정액급여증가율은 5.1%에서 2.3%로 둔화하면서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둔화를 견인하고 있다. 주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0%p ↓), 제조업(0.3%p ↓) 부문의 대규모 사업체에서 정액급여증가율 둔화가 컸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의 정액급여증가율 또한 전년과 동일한 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중·상상지위별, 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 상대임금 차이는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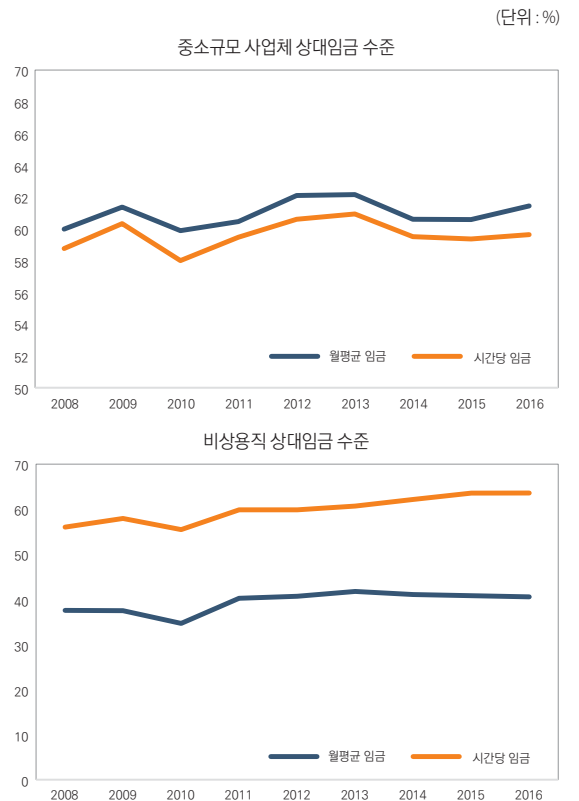
III. 임금구조 변화

특성별 상대임금 차이는 여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6년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상승률(3.6→3.7%)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은 둔화(3.7→2.3%)되었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다.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대규모 사업체의 상승률을 상회하면서 중소기업 사업체의 상대임금수준(대규모 사업체 임금=100)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60%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다. 한편 상용직 대비 비상용직의 상대임금수준은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면서 2013년 41.8%를 기록한 이후 차츰 낮아져서 2016년 현재 상용직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6%).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6년 중소기업 사업체의 상대임금수준은 월평균임금·시간당

[그림 7] 중소기업 사업체, 비상용직의 상대임금 수준(월평균임금·시간당임금) 추이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임금총액 기준임.
 시간당 임금은 특성별 월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표 2> 특성별 상대임금수준(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추이
(단위 : %)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비상용직 (상용직=100)	비정규직 (정규직=100)	중소규모 (대규모=100)	비상용직 (상용직=100)	비정규직 (정규직=100)	중소규모 (대규모=100)
2006	47.8	62.8	56.6	49.5	71.0	55.5
2007	46.3	63.5	55.4	47.7	70.9	54.4
2008	46.3	60.9	55.7	47.5	68.0	54.6
2009	44.9	54.6	55.2	46.5	61.5	55.5
2010	45.5	54.8	55.1	47.2	62.5	54.0
2011	46.3	56.4	54.7	49.2	65.3	55.1
2012	46.2	56.6	54.6	48.8	64.3	54.9
2013	45.7	56.1	54.4	49.3	64.8	55.3
2014	46.6	55.8	54.8	50.5	64.3	56.0
2015	46.3	54.4	56.0	52.0	65.0	57.2
2016	45.5	53.5	53.5	52.2	65.4	56.0

주 : 전체임금근로자의 특성별 임금 기준임.
시간당 임금=월평균 임금/(평소 주당 근로시간×365/1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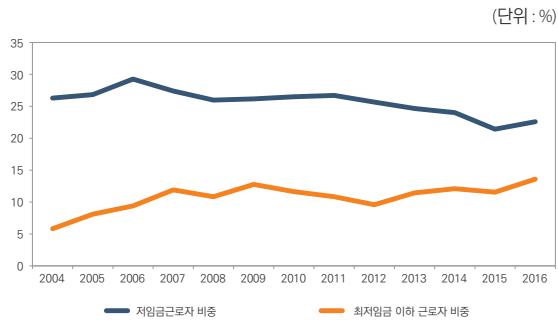
임금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대규모 사업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상용직의 상대 임금수준도 상용직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수준(시간당 임금 기준)은 65.4%로 나타나 두 조사 모두에서 특성별 상대임금 차이가 여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임금 근로 비중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6년 저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2.6%인 4,434천 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10여 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미국(2015년 기준 25.0%), 영국(19.9%) 등과 함께 높은 수준의 나라에 속한다.

2016년 고용률이 증가한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저임금근로 비중을 보면, 청년층의 경우 10년 전인 2006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층에서 저임금근로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은퇴시기에 속하지만 노동시장에 그대로

[그림 8] 저임금·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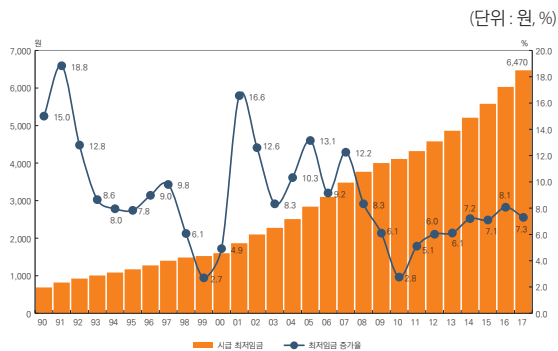


<표 3> 연령별 임금수준 비중(시간당임금 기준)

		청년층 (15~29세)	15~24세	25~29세	핵심연령층 (30~59세)	고령층 (60세 이상)	65세 이상
		20	저임금	30.8	50.6	20.4	26.0
0	중간임금	58.9	45.6	66.3	46.2	21.9	18.4
6	고임금	10.3	3.8	13.3	27.9	8.1	4.9
20	저임금	28.7	45.7	17.6	17.7	56.6	68.4
0	중간임금	63.8	51.8	71.9	53.3	35.8	27.5
1	고임금	7.5	2.4	10.5	29.1	7.6	4.1

주 :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시간당 평균임금이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3/2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함.
시간당 평균임금은 (3개월 평균임금)/(평소 주당근로시간×365/1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그림 9] 최저임금(시급)·최저임금증가율 추이



자료 : e-나라지표, www.index.go.kr

머물고자 하는, 은퇴했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10%p 이상 감소한 56.6%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보면 10년 전인 2006년에 비해 모든 연령층에서 저임금 비중이 감소한 반면 중간임금계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미만 저학력층에서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감소추세이나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과 함께 높은 나라에 속함

저임금근로 비중은 55.8%로 10년 전에 비해 낮아졌으며, 초대졸·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저임금근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12.4%, 7.0%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학력화가 저임금근로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근로자는 금융위기(12.8%) 이후 2012년 9.6%까지 감소했다가 2016년 13.6%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높은 최저임금인상률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IV. 2017년 임금전망

2017년 양대노총과 경총의 임금가이드라인

매년 양대노총과 경총은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017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6%(정액 257,860원)로 확정하여 발표했으며, 민주노총도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동일 금액 인상안(월 239,000원)을 제시하였다.

경영계(경총)는 「2017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통해 2017년 임금을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표 4>는 경총의 임금가이드라인과 양대노총의 임금인상요구안을 정리한 것이다.

2017년 경제지표 전망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발표하는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2%대의 저성장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6년 10월 2.8%보다 0.3%p 낮춘 2.5%(2017년 1월)로 수정 제시하였다. 한국은행은 2017년에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추경예산집행 등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상방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정치적 혼란에 따른 경제심리의 회복이 지연되고, 가계 부채 부담,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하방리스크가 혼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IMF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4%p 하락한 2.6%로 조정하여 발표하였다.

<표 4> 경영계의 제시율과 노동계의 요구율 및 명목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원)

	경영계(경총)	노동계		명목임금 상승률
		민주노총	한국노총	
2000	5.4	15.2	13.2	8.0
2001	3.5	12.7	12.0	5.1
2002	4.1	12.5	12.3	11.2
2003	4.3	11.1	11.4	9.2
2004	3.8	10.5	10.7	6.0
2005	3.9	9.3	9.4	6.6
2006	2.6	9.1	9.6	5.7
2007	2.4	9.0	9.3	5.6
2008	2.6	8.0	9.1	4.4
2009	-	-	-	2.2
2010	0.0	9.2	9.5	6.4
2011	3.5	-	9.4	-0.9
2012	2.9	9.3	9.1	5.3
2013	-	219,170	8.1	3.8
2014	2.3	225,000	8.1	2.4
2015	1.6	230,000	7.8	3.3
2016	동결	237,000	7.9	3.8
2017	동결	239,000	7.6	-

- 주: 1) 2004년 경총은 3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300인 미만 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함.
 2) 2005년 경총은 1,0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1,000인 미만 기업은 3.9% 인상을 제시함.
 3) 2006년 경총은 수익성 저하 기업과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6% 인상을 제시함.
 4) 2007년 경총은 대졸 초임 및 고임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4% 인상을 제시함.
 5) 2009년도는 '2.23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노사가 요구율 및 제시율을 발표하지 않음.
 6) 2005년도부터 노동계 요구율은 정규직 요구율을 기준으로 함.
 7) 2011년 민주노총은 전체 정규직 요구율을 발표하지 않고 산별조직이 독자적으로 정하게 함.
 8) 2013년부터 민주노총은 '동일정액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음.
 9) 2017년 경총은 전년수준 동결원칙으로 하고, 여력이 있는 기업은 신규 채용 확대와 취약계층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
 10) 명목임금상승률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대상임.
 자료: 한국경총·민주노총·한국노총 및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각 연도.

여기에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은 금융위기 전후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10 참조). 2017년 경제성장률이 2016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저유가로 인한 소비자물가 하락 효과는 사라지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를 벗

2017년 임금상승률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임금상승폭 둔화

〈표 5〉 2017년 경제전망

(단위: %)

		2016			2017p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	하반	연간
한국은행 (2016.1)	GDP	3.0	2.5	2.7	2.4	2.6	2.5
	민간소비	2.7	2.1	2.4	1.9	1.9	1.9
	설비투자	-3.6	-1.5	-2.6	3.0	2.0	2.5
	건설투자	10.3	11.5	10.9	5.9	3.0	4.3
	상품수출	0.1	1.7	0.9	2.9	2.0	2.4
	상품수입	0.7	2.5	1.6	4.3	0.5	2.3
	소비자물가	0.9	1.1	1.0	1.8	1.7	1.8
한국노동 연구원 (2016.12)	취업자증가율	1.2			1.1p		
	실업률	3.7			3.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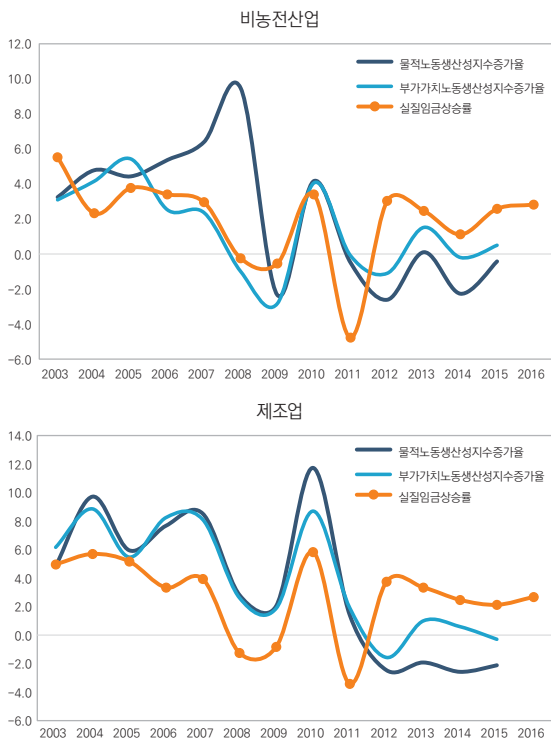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017년 경제전망」 보도자료(2017년).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6년 12월호.

[그림 10] 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과 실질임금상승률 추이
(1인당 기준)

(단위: %)



주: 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은 모두 인당 기준임. 부가가치노동생산성지수는 비농전산업 실질GDP지수 - 취업자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총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어나 예년 수준을 회복해 간다면 실질임금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임금상승률은 경기적인 환경 이외에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결정되므로 노사관계 요인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은 최근 몇 년 동안 3~4%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상용직 정액급여증가율의 흐름과 흡사하다. 2016년 협약임금과 상용직 정액급여 모두 3%대 초반의 상승률을 보였다.

2017년 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3.5% 수준으로 전망

2017년 생산성 임금제에 의한 이론임금인상률은 경제 및 노동시장 지표의 전망치, 즉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2.5%)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1.8%),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취업자증가율 전망치(1.1%)가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 약 3.2% 수준으로 계산된다.³⁾

그러나 국민경제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은 실제 임금상승률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론임금인상률은 생산성 이외에 노동시장의 여건, 노사관계, 사회적 분위기 등 임금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증가율은 2010년 이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실질임금상승률도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임금상승률도 2016년 실적치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임금상승을 이끈 저유가와 건설업은 2017년에 유가수준이 높아지고 건설업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7년 최저임금인상률(7.3%)

2017년 경제성장률(전망치)
둔화, 높은 유가수준, 건설업
증가세 둔화는 임금상승폭 제한

그러나 전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인상률과
2017년 공무원 임금이 전년대비
3.5% 상승한 것은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

3) 임금상승률은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면 근로자의 기여분만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에 완전경쟁시장 및 1차 동차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이윤극대화 조건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한 이론임금인상률은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은 전체 임금상승률(3.8%)보다 높은 수준이며, 2017년 공무원임금인상률 또한 전년대비 0.5%p 상승한 3.5%인 점 등이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2017년

임금상승률은 전년보다는 소폭 하락한 3.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경총, 「2017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보도자료.
- 민주노총, 「2017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보도자료.
- 한국노총, 「2017년 임금인상요구율」 보도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기업경영분석」 자료.